

# 『東文選』 문체 분류의 성격

김 종 철\*

## 目 次

1. 序論
2. 形式主義基準
3. 選文層次方式
4. 駢散兼宗特性
5. 結論

### 1. 序論

지금까지 한문문체 분류에 대한 논의들은 문체 분류 자료들에 나타나는 文類의 逸脫과 혼재양상 그리고 특정 文類의 수용여부 등의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문체 분류라는 것 자체가 문체 분류 주체의 문학관과 審美的 嗜好와 같은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文類의 相異點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문체 분류 자료가 지니고 있는 분류기준과 방법을 해명할 수 없다. 문체 분류 자료가 지니고 있는 문체 분류의 기본구조 즉 분류기준과 분류방법을 밝히지 않고, 자료들 간에 나타나는 文類의 相異點만을 논하는 일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각각의 문체 분류 자료들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분류기준과 방법이 정확

\* 대구한의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하게 제시되어야만 각 자료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개별 자료의 문체 분류 개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당연히 논의 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동문선』이 지니고 있는 문체 분류기준과 방식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방법으로 형성된 『동문선』 문체 분류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形式主義基準

한문학에서 문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전통적으로 2가지 논의 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그것은 형식과 風格이다. 먼저 문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의 風格은 작가의 세계관이 특징적 언어와 문장수법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서, 논리적 분석보다 직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풍격에 의한 문체분류의 대표적 先例는 유협이 『文心雕龍·體性』에서 “一曰典雅 二曰遠奧 三曰精約 四曰顯附 五曰繁縟 六曰壯麗 七曰新奇 八曰輕靡”라고 한 것에서 살필 수 있다. 典雅·遠奧·精約·顯附·繁縟·壯麗·新奇·輕靡 등은 문장에서 작가가 표출하고 있는 수사학적 특성과 氣象, 그리고 세계관 등의 요소를 비평한 용어들이다. 이와 같이 풍격분류에 쓰이는 변별점들은 문장의 형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분류는 이와는 반대로 문장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의 구조적 형식을 변별점으로 삼는다. 문장체제의 表現形式과 內容形式을 비평대상으로 삼았다는 조비의 『典論·論文』과 육기의 『文賦』가 이러한 형식 분류의 대표적 先例이다.<sup>1)</sup> 이러한 형식 분류는 文體論著인 『문심조룡』의 문체분류 부분인 「明時」와 「書記」에서 적용되고, 『文選』에 의하여 選文學의 필수적인 편찬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후대의 선문학 자료들은 형식 분류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선』의 분류체제를 기본으

1) 諸海星, 「中國文體分類學的研究」,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국문연구소, 중화민국 12년 6월, 54-59면.

로 하게 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문선』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동문선』에 선집된 문장들을 분류하면서 적용된 분류기준은 『동문선』 序·箋에서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편찬 주체들은 먼저 “『商書』에 남아 있는 典·謨를 통하여 唐虞의 文을 알고, 訓·誥·誓·命 등을 통하여 三代之 文을 알고, 『文選』·『文粹』·『文鑑』·『文類』를 통하여 후세의 文運을 알 수 있다”<sup>2)</sup>라고 하면서 시문선집 편찬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箋文에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分類하고 뽑아 정리하여야 한다.”<sup>3)</sup>라고 하여, 선집된 문장들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文의 본질은 天·地·人 三才의 현상과 질서를 밝히는 것”이라는 三才論的 文章觀<sup>4)</sup>을 제시하는 한편, 人文을 精·一·中·極의 體와 詩·書·禮·樂의 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시대마다 文이 있고 文은 각각의 體가 있다”<sup>5)</sup>라고 하면서, 각각의 문이 지니고 있는 體를 문장을 분류하는 변별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體가 바로 이상에서 살핀 문체분류 기준 중에서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體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2) 『동문선서』, 『국역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98a, 1-2면; 讀典謨 知唐虞之文 讀訓誥誓命 知三代之文 秦而漢 漢而魏晉 魏晉而隋唐 隋唐而宋元 論其世考其文 則以文選文粹文鑑文類諸編 而亦樂論後世文運之上下者矣.
- 3) 『동문선전』, 『국역문선 1』, 민족문화추진회, 1998b, 3-4면; 蓋欲久於流傳 必在彙而刪定.
- 4) 이러한 三才論的 文章本質論은 『주역』의 說卦;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著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昔者 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 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 『原本周易』, (太山文化社, 1984, 1127-1131면에서 인용 설명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文章者 所以宣上下之象 明人倫之敍 窮理盡性 以究萬物之宜者也 (鄒紹虞·王文生, 『中國歷代文論選』 第 1冊, 上海古籍出版社, 1982, 190면.)”라고 한 摯虞(西晉?·311)의 <文章流別論>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동문선서』, 『국역동문선 1』, 민족문화추진회, 1998a, 1-2면; 乾坤肇判 文乃生焉 日月星辰 森列乎上而爲天之文 山岳海瀆 流峙乎下而爲地之文 聖人畫卦造書 人文漸宣 精一中極 文之體也 詩書禮樂 文之用也 是以代各有文 而文各有體.

신들이 높으신 위촉을 받자와 삼국으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辭賦·詩·文 몇 가지의 體를 수집하여, 그 가운데 글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있을 만한 것을 취하여 分門으로 類聚 정리하여 130권을 편성하여 올렸더니 『동문선』이라고 이름을 내리셨습니다.<sup>6)</sup>

이 말은 『동문선』이 문장을 분류함에 있어서 먼저 辭賦·詩·文이라는 문장 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治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닌 문장들을 모아 형식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詩·文이라는 문학의 전통적 이분법적 형식 분류 사고에서 벗어나 辭賦를 별도로 형식 분류하여 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동문선』의 편차 속에서는 다른 문류와 함께 辭·賦라는 文類로 단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동문선』이 형식분류의 大綱으로 밝힌 이러한 시각은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나 상당히 진보적인 분류의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誦讀의 口述形式을 특징으로 삼아 辭賦를 독립적으로 上位分類하여 형식 분류하는 체계<sup>7)</sup>는 清代 姚鼐(1731-1815)의 『古文辭類纂』에 가서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식 분류에 대한 서문에서의 이러한 언급은 『동문선』 편찬자들이 문체 분류를 함에 있어 형식 분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문선』은 실재로 文類들을 나열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辭賦→詩→駢體의 奏議類→散文體의 文類→有韻文인 儒佛道の 哀祭類와 같이 형식별로 나열하고 있다.

문장의 風格보다 형식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 이러한 형식주의 분류 기준은 『동문선』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동문선』의 성격을 “包羅廣博 衆體皆備”<sup>8)</sup>라고 표현한 『五洲衍文長箋散

6) 앞의 글, 1-2면; 臣等仰承隆委 採自三國 至于當代 辭賦詩文摠若干體 取其詞理醇正 有補治教者 分門類聚釐爲一百三十卷 編成以進 賜名曰 東文選.

7) 沈成鎬, 「楚辭文體考」, 『中國語文學』 제26집, 1995. 3-25면 참조.

8) “英廟朝徐居正等 受命撰集 起高句麗乙支文德 新羅崔致遠 高麗金富軾 以至本朝諸賢 包羅廣博 衆體皆備”(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분류별 > 고전국역총서 > 오주연문장전산고 >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4 - 경사잡류 2 > 기타 전적 其他典籍 - 중국 전적)

稿』의 기록은 형식주의 분류기준이 낡은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當代나 後代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 받았던, 주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選文觀의 불철저성에 대한 비판들 또한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 분류 기준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주의 분류 기준은 選文層次 分類方式으로 구체화된다.

### 3. 選文層次方式

『동문선』과 같은 선문학적 자료들과 『문장류별론』과 같은 총집형 자료<sup>9)</sup>들의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분류방식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명	자료형태	문체론	문체분류방식	분류방식명칭
문장류별론	총집형	有	12類→選文	選文層次分類
문선	선문학적형	無	37類→子目(詩,賦類에만) →選文	자목+선문층차분류
문원영화	선문학적형	無	38類→子目(38類중 선택적 제시)→選文	자목+선문층차분류
당문수	선문학적형	無	22類→111項→子目(111項중 선택적 제시)→選文	2단계자목+선문층차분류
문장정종	총집형	有	4門→類→子目(문체론에서 子目제시)→選文	門類+자목+선문층차분류
문장변체	총집형	有	59類→子目(序說에서 子目제시)→選文	자목+선문층차분류
문체명변	총집형	有	127類→子目(序說에서 子目제시)→選文	자목+선문층차분류
고문사류찬	총집형	有	13類→選文	선문층차분류
경사백가잡초	총집형	有	3門→11類→選文	門類+선문층차분류
합분루고금문초	선문학적형	無	13類→202子目→選文	자목+선문층차분류

(이상 중국자료)

- 9) 選文學型 자료형태와 總集型 자료형태의 구별은 문체 분류 자료에 문체론 記述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문체론을 포함한 자료는 총집형 자료로, 그렇지 않은 자료는 선문학적형 자료로 恣意的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명	자료형태	문체론	문체분류방식	분류방식명칭
협주명현십초시	선문학형	무	1류→선시	선문층차분류
동인지문사륙	선문학형	무	17류→자목(祝文에만 해당)→ 선문	자목+선문층차분류
동인지문오칠	선문학형	무	8류→선시	선문층차분류
동문선	선문학형	무	55류→선문	선문층차분류
속동문선	선문학형	무	37류→선문	선문층차분류
청구풍아	선문학형	무	8류→선시	선문층차분류
동문수	선문학형	무	24류→선문	선문층차분류
국조시산	선문학형	무	3류→선시	선문층차분류
기아	선문학형	무	8류→선시	선문층차분류
동문팔가선	선문학형	무	28류→선문	선문층차분류

(이상 한국자료)

이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문체 분류 자료들은 기본 文類에 상위분류나 하위분류 단계를 지니는 層次分類體系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의 층차분류체계는 그 형태에 따라 門類層次分類, 子目層次分類, 選文層次分類 그리고 이들의 형태가 혼합된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0)</sup> 그러면서도 중국 문체분류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분류체계는 『문선』에서 제시한 자목층차분류와 선문층차분류가 혼합된 형태임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0) 門類層次分類, 子目層次分類, 選文層次分類 등의 용어는 본고에서 처음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금까지 사용되던 층차분류의 형태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門類層次에서의 門은 『경사백가잡초』에서 제시된 3門(著述門, 告語門, 記載門)이란 상위 분류용어에서 빌어온 것으로서 類의 상위분류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子目은 類의 하위분류를 의미한다. 選文層次분류는 기본 類名만 제시하고 문체론이나 子目的 분류 없이 詩文을 기본 분류 단계인 類 분류아래 직접 제시하여, 해당 文類의 형식적 다양성을 문장으로 직접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에 한국의 자료들은 중국자료에서는 『문장류별론』에서만 나타난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거의 모든 자료들이 선택하고 있다. 『동문선』에서는 “신 등이 옛 『문선(文選)』을 본떠서 문장을 모았다.”<sup>11)</sup>라고 하여, 『동문선』이 중국 문체 분류 자료인 『문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문선』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詩와 賦의 분류에서는 子目을 제시하고 選文을 하는 자목층차와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나머지 문류 아래에서는 선문층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자목층차와 선문층차가 혼합된 형태이다. 반면에 『동문선』은 문류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직접 詩文을 선집하는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밀하게 살핀다면 『동문선』과 『문선』은 층차분류라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동문선』의 분류방식이 더욱 단순하다. 그리고 분류방식만을 따진다면 『동문선』은 『문장류별론』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문체론이나 자목분류 없이 문장을 선집하여 직접 제시하는 선문층차 분류방식은 문체론이나 문체분류가 일차적 목적이라기보다 選集에 우선 목적이 있는 자료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즉 문체를 분류하기 위하여 문장을 선집한 것이 아니라 선집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인지되어 있는 문체명칭들을 이용하여 단순 나열하는 문체분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체분류 자료는 거의 이러한 범주에 드는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본격적인 문체분류 자료가 나타나는 고려 말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문체론과 문체분류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고려나 조선에서는 굳이 새로운 문체론이나 분류체계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식이 절박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문체분류자료는 모든 자료들이 문체비평과 자목분류가 나타나지 않는 선문층차 분류체계를 지닌 선문학형 문체분류 자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선문학형 문체분류

11) 『성종실록』, 권 55, 6년 乙未, 5월 乙卯; 臣等 欲倣古文選 自新羅 至我朝 類選詩文.

자료인 『동문선』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동문선』의 선문층차 분류방식은 “진실로 體例가 법도에 부합되지만 하면 여간 흠이 있어도 모두 채택하여 빠뜨리지 않았다.”<sup>12)</sup>라고 하는 말에서도 분명하게 살필 수 있듯이, 體例가 법도에 맞는 문장들을 선문하여 문학의 전범성을 제시하고자 한 『동문선』 편찬의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동문선』은 중세의 다양한 문학 자료를 選集하여 후대에 전범을 보이하고자 한 자료라는 평가<sup>13)</sup>가 정설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작가의 선택에 있어서 의리에 관용적이고, 주제성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의 엄격함이 없고,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차별적으로 다양한 문류를 포함하고 있는 『동문선』<sup>14)</sup>이 과연 어떤 전범성을 어떻게 제시하고자 한 것인가. 『동문선』 편찬자들은 바로 선문층차 분류방식이란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세문학의 體例 즉 형식을 후세에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이용한 『동문선』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지 선집된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직접 검증해 보고자 한다.

『동문선』 소재 4240餘 題에 가까운 詩文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頌과 贊문류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희은 ‘贊’의 외적형식에 관하여 “所以古來篇體 促而不廣 必結語於四字之句 盤桓乎數韻之辭”라고 하여, ‘贊’이라는 文類의 형식적 특성을 ‘必’이라는 부사까지 사용해 가면서 短形의 四言句로 脚韻이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贊’의 형식에 대한 이러한 유희은의 논의는 『文體明辨』에서 “劉綏有言 贊之爲體 促而不曠 結言於四字之句 盤桓乎數韻之辭”<sup>15)</sup>라고 한 徐師曾에 의하여 온전히 계승

12) 『동문선전』, 『국역문선 1』, 민족문화추진회, 1998b ; 荀體例有合於規矩 而採掇不遺於葑菲

13) 이동환, 『『동문선』의 선문방향과 그 의미』, 『한국고전심포지움』, 일조각, 1985, 65면.

14) 이러한 『동문선』의 평가도 위와 같은 자료에서 이동환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다.

15) 徐師曾, 『文體明辨序說』贊條, 大安出版社, 1998.



된다. 본고에서는 ‘贊’의 形式에 대한 이러한 원론적인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東文選』에서 제시하고 있는 73題 93首의 형식적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문선』에서는 찬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四言型<sup>16)</sup>이 집중적으로 제시된다. 73題의 ‘贊’작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1題의 작품을 四言型으로 선집하여 ‘贊’의 正體인 四言體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四言型의 작품들 또한 10句 이내의 短篇型부터 40句 이내의 中篇型, 40句 이상의 長篇型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형식별로 살펴보면, 短篇型으로는 李穡의 「息牧贊」, 中篇型으로는 李穡의 「義谷清卿四字贊」, 長篇型으로는 72句로 이루어진 李穀의 「後漢三賢贊」이 제시되고 있다. 『동문선』에는 이상에서와 같은 長短句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楚辭體와 詩經體가 혼재된 문체의 찬, 樂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詩歌體, 동일한 제목과 주제 아래 여러 개의 贊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聯作體 등과 같은 變體型 贊들도 적극 제시되고 있다.

楚辭體와 詩經體가 혼재된 문체의 찬 작품으로는 李奎報의 「崔相國宗峻使丁郎中鴻進畫墨竹請予作贊二首書屏之左右」, 朴仁範의 「慧照國師眞贊」과 權遇의 「吉注書畫像贊」, 詩歌型으로는 李詹의 「大射贊」, 聯作體의 작품으로는 「十二駿圖贊」이 있다. 이러한 것은 『동문선』 편찬자들이 선문충차 분

16)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 41題는 다음과 같다. 梵日國師影贊(朴仁範), 和諍國師影贊(金富軾), 二相歸休圖贊(李仁老), 陶潛贊(李奎報), 幻長老以墨畫觀音像求予贊(李奎報), 丁而安寫予眞自作贊曰(李奎報), 安處士墨竹贊(李奎報), 崔相國使丁郎中鴻進畫墨竹請予作贊二首書屏之左右(李奎報), 蠶贊(李奎報), 蜜蜂贊(李奎報), 畫老松贊(李奎報), 丁學士而安掃與墨竹四幹各作贊云(李奎報), 松廣社主大禪師夢如遺侍者二人求得丁而安墨竹二幹仍邀予爲贊云(李奎報), 北山洛山寺贊(柳叟), 益齊眞自贊(李齊賢), 白樂天真贊(李齊賢), 蘇東坡眞贊(李齊賢), 松廣李國師眞贊(李齊賢), 順菴眞贊(李穀), 後漢三賢贊(李穀), 義谷清卿四字贊(李穡), 判三司崔公畫像贊(李穡), 息牧叟贊(李穡), 賜龜谷西院畫贊(李穡), 贈侍中鄭公畫像贊(李穡), 金畫蘭贊(李穡), 上札贊(李穡), 無能居士贊(李穡), 天台宗師弘濟尊者眞贊(李詹), 大射贊(李詹), 趙政丞眞贊(李詹), 贊勝羸庵受賜御札(權近), 御札李氏名贊(權近), 崔文獻眞贊(權近), 獨谷謙坐圖贊(權近), 敬烈公眞贊(權近), 畫釋迦贊(姜碩德), 八駿贊(李季句), 十二駿圖贊(崔恒), 假山贊(姜希孟), 御札贊(金宗直).

류방식을 통하여 正體뿐만 아니라, 變體의 모습까지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選例이다. 『동문선』에서는 사언형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句數의 변체라 할 수 있는 五言型, 七言型, 雜言型도 제시되고 있다. 五言型으로는 卞季良의 「釋迦畫像贊」 1篇만이 제시되고 있으니, 게재 편수에서도 五言이 「贊」의 형식으로는 일반적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七言型의 작품으로는 李奎報의 「丈六毗盧遮那塑像贊」, 「靈丹贊」, 卞季良의 「毗盧畫像贊」 등의 3篇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四言型 41首, 五言型 1首, 七言型 3首를 제외한 28首의 작품이 雜言型으로 『동문선』에 제시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의 형식들을 살펴보면, 雜言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散體로 된 경우는 드물게 보이며, 대개가 四言을 위주로 하면서 五言, 六言, 七言, 八言 등과 같은 句가 섞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17)</sup>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문선』은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통하여 특정 문류의 正體뿐만 아니라, 變體에 이르기까지 제시 가능한 모든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문선』에 단 8편<sup>18)</sup>만 선집된 「頌」 문류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頌은 주제별로, 왕실이 종묘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서 행해지는 춤과 노래를 묘사한 樂歌인 周頌系列과, 宗廟의 제사에서 행해지는 舞樂을 표현하는 내용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고 대상물의 칭송만을 위주로 하는 魯頌系列과, 宗廟의 제사에서 행해지는 舞樂을 표현하는 내용적 요소는 유지하면서 周頌과 같이 당대의 통치자가 아닌 先王朝의 덕을 칭송한 商頌계열의 작품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도 頌의 내적의미의 定型性은 周頌이다. 『東文選』에서는 李奎報의 「聖皇朝享大廟頌」이 周頌의 내용적 定型性을 제시하고 있다. 魯頌계열의 작품으로는 李奎報의 「平契丹頌」, 「尹司業威安撫南原頌」, 「法華徑頌」, 李季甸의 「集賢殿藏書閣頌」 등

17) 贊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졸고(1997a)”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18) 李奎報의 「聖皇朝享大廟頌」·「平契丹頌」·「尹司業威安撫南原頌」·「法華徑頌」·「洛山觀音腹藏修補文」, 李齊賢의 「謁三王廟各獻頌」, 李穡의 「受命之頌」, 李季甸의 「集賢殿藏書閣頌」

이다. 그리고 商頌계열의 작품은 「謁三王廟各獻頌」이다. 그리고 頌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頌의 기원이 『詩經』에 있는 만큼, 四言體의 韻文이 正體가 되고 散文은 변체이다. 『東文選』에 수록된 頌작품들은 序文을 并序 하면서 四字句 형식의 韻文인 정체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李奎報의 「法華經頌」과 「洛山觀音腹藏修補文」은 변체의 형식으로 제시된 문장이다. 「法華經頌」은 并序 부분을 제외한 작품전체가 완전한 七言體로 되어 있다. 그리고 「洛山觀音腹藏修補文」은 작품의 제목 자체에서도 頌이라는 文類 名稱이 드러나 있지 않듯이, 頌文이 「洛山觀音腹藏修補文」의 并頌으로 쓰여진 매우 특이한 형식의 頌이다.<sup>19)</sup> 이와 같이 『동문선』 편찬자들은 단 8편 만의 頌을 선집하면서도, 頌의 주제별 분류라 할 수 있는 周頌·魯頌·商頌에 속하는 작품을 모두 제시하는 한편, 형식적으로는 四言의 正體 위주로 제시하면서 變體라 할 수 있는 七言體와 并頌의 형식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찬자들의 적극적인 의도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8편 작품 하나 하나가 頌의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문선』에서 제시된 작품들은 문장 하나 하나가 文體論과 子目的 역할을 하는 목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분류된 하나의 문류 안에 다양한 형식의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자목과 문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문장의 다양한 형식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문선』은 유교의 보편적 문장관이라 할 수 있는 ‘詞理醇正 有補治教者’ 라는 정도의 내용을 지닌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세 한문학의 다양한 형식적 모습을 선문층차 분류방식이란 문체분류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문선』의 이러한 선문층차 분류방식은 후대의 자료들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문체분류 자료들은 선문학형 문체분류자료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동문선』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기존의 학계로 하여금 『동문선』에 소

19) 頌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 「頌의 문류 특성에 대하여」, 『국학논총』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소, 1997.”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한 특정 문류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석적 연구 또한 가능케 하고 있다.<sup>20)</sup>

#### 4. 駢散兼宗特性

중국의 근대학자 蔣伯潛은 『文體論纂要』<sup>21)</sup>에서 “中國古代文體分類的流派可總括爲駢散兼宗派駢文派和散文派”라고 하여, 문체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駢散兼宗派·駢文派·散文派의 구별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李家源도 駢·散文 諸家の 文體分類와 新·舊派의 문체 분류를 논하면서 위의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駢文派의 분류로는 『문선』, 駢山兼宗派의 분류로는 『문심조룡』, 散文派의 분류로는 『당문수』·『고문사류찬』·『경사백가잡초』등을 대표 자료로 제시하여 논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병문파와 산문파라는 종파가 성립되지는 못하였고, 다만 麗·李 兩朝에 걸쳐 총집 또는 문집 형태로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駢散兼宗의 선집으로서 『동문선』의 명칭과 분류된 文類만 구체적 논증 없이 제시하고 있다.<sup>22)</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先覺들의 논의에 귀 기울이면서 『동문선』의 駢散兼宗의 분류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문체 분류 자료들을 살펴보면, 駢文을 모은 선집은 고려 최해의 『東人之文四六』부터 조선조 趙仁奎(中宗祖)의 『儷語編類』, 李植(1584-1647)의 『儷文程選』, 姜柏年(1603-1692)의 『雪峯所選』, 金錫胄(1634-1684)의 『儷文抄』, 南龍翼(1628-1692)의 『儷選兩體』, 柳近(肅宗朝)의 『儷文註釋』, 金鎭圭(1658-1716)의 『儷文集成』, 丁若鏞(1762-1836)의 『洌水文鏡』, 洪奭周(1774-1842)의 『象藝

20) 이러한 연구로는 경일남(1991), 고경식(1982), 고혜영(1989), 김성기(1978), 김성진(1998), 김시엽(1985), 김윤권(1993), 이경자(1999) 외 다수의 연구 자료가 있다.

21) 蔣伯潛(1942). 13면, 蔣伯潛.

22) 이가원, 「한문문체의 분류적 연구」,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0.

齋粹』 등의 10여 종이 있다. 그리고 산문의 문체 분류로는 조선전기 金宗直(1431-1492)의 『東文粹』로 시작되어 17-18세기에는 金錫胄의 『古文百選』, 崔昌大(1669-1720)의 『古文集成』이 있었고, 19세기 전반에는 南公轍(1760-1840)의 『四君子文鈔』, 洪吉周(1786-1841)의 『大東文雋』·『海東諸名家文選』, 李正觀(1792-1854)의 『東文小選續錄』, 徐有棻(1775-1847)의 『東文八家選』·『東文類』 등이 있었으며, 19세기 중엽에는 宋柏玉(1837-1887)의 『東文集成』, 20세기 초에는 金澤榮(1850-1927)의 『麗韓九家文鈔』 등이 있다. 이상의 駢文選集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병문을 선집한 것은 『동인지문사륙』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唐宋代의 중국작품을 주요 선문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문선집 중에는 『東文粹』·『古文百選』·『東文八家選』·『東文集成』·『麗韓九家文鈔』 등만 현존하고, 나머지 『古文集成』·『四君子文鈔』·『大東文雋』·『海東諸名家文選』·『東文小選續錄』·『東文類』 등은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편찬 동기가 『동문선』의 잘못된 선문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동문수』와 우리나라 병문만을 대상으로 선문한 『동인지문사륙』의 문체분류 양상을 『동문선』과 비교하여 『동문선』 문체 분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인지문사록		동문선		동문수	
문류명칭	작품수	문류명칭	작품수	문류명칭	작품수
事大表狀	121				
冊文	17	冊			
麻制(制誥)	7	制誥			
敎書	56	敎書			
批答	11	批答			
祝文	53	祝文			
道詞	20				
樂語	12				
上樑文	1	上樑文			
陪臣表狀	34				
表	69	表箋		表	2
箋	4			箋	1
狀	58	狀			
啓	24	啓			
詞疏	6				
致語	1	致語			
		墓誌		墓誌	4
		文		文	4
		銘		銘	5
		賦		賦	5
		贊		贊	6
		辨		辨	2
		論		論	8
		辭		辭	3
		說		說	15
		箴		箴	2
		頌		頌	2
		記		記	21
		疏		疏	3
		書		書	4
		志		志	1
		序		序	38
		傳		傳	4
		碑銘		碑銘	1
		對		對	1
		原		原	1
		雜著		雜著	1
		檄書		檄書	1
事大表狀·道詞·樂語·陪臣表狀·詞疏		詔勅·露布·奏議·牒·議·跋·策題·祭文·道場文·齋詞·書詞·哀詞·誄·行狀			

(\* 제일 아래 줄의 문류들은 다른 자료에 동일한 문류 명칭이 없는 것들이다.)

이상의 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駢文選集인 『동인지문사륙』과 散文選集인 『동문수』가 분류하고 있는 文類 종류는 완전한 반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85편에 달하는 『동인지문사륙』의 문장과 135편의 작품을 選하고 있는 『동문수』 사이에 단 3편의 작품만이 같은 文類로 나타날 뿐 전혀 교착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채택된 『동문수』의 表文들마저도 駢文의 특징인 對句와 典故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 崔灌가 四六이 아니라고 評하였다.<sup>23)</sup> 김택영이 古文九大家의 작품으로 삼은 김부식의 「진삼국사표」, 「上金國誓表」와李克堦의 「進高麗史節要傳」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문체 분류의 대상 문류 종류뿐만 아니라, 문체적 특징까지 『동인지문사륙』과 『동문수』의 문체는 한 작품도 같은 문체적 특징을 가진 작품이 없다. 이와 같이 두 자료는 그 문체 분류 성격에 있어서, 우리나라 병문과 산문 문체 분류 자료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료이다.

이러한 선명한 개성을 지닌 두 자료사이에서 『동문선』의 문체 분류 대상이 된 문류들을 보면, 두 자료의 문류들을 균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위의 表에서 서로 교착되지 않은 문류로는 『문장류별론』의 事大表狀·道詞·樂語·陪臣表狀·詞疏와 『동문선』의 詔勅·露布·奏議·牒·議·跋·策題·祭文·道場文·齋詞·靑詞·哀詞·誄·行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분류주체의 문체관과 시대적 차이에 의한 명칭과 분류의 차이일 뿐이며, 분류주체의 의도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교착이 가능한 속성을 지닌 문장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문선』에서 문체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류의 양상은 우리나라 駢·散文의 대표적 선집들이 지닌 문체 분류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는 駢散兼宗의 문체 분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서거정이 중국 駢文派 문체분류의 원류인 “『문선』을 본받아 『동문선』을 찬하였다.”<sup>24)</sup>는 기록에 의하여 구

23) 『고려명현집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0. 125면.

24) 『성종실록』, 권 55, 6년 乙未, 5월 乙卯; 臣等 欲做古文選 自新羅 至我朝 類選詩文.

체적이기 보다 총체적으로 『동문선』이 『문선』의 분류체계를 따른 편찬물이라고 인정해 온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선』의 서문을 살펴보면, 소통은 “事出於沉思 義歸乎翰藻”라는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문학의 고유 특성으로 인식한 그는 문장을 선집함에 있어서도 形式美와 辭藻美를 중시하여 辭藻가 華美하고 聲律을 중시하는 楚辭와 漢賦, 그리고 六朝以來의 駢文에 중점을 두고 문장을 選好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초사의 작품명인 ‘騷’를 문체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실질적으로 『문선』 문류들의 분류와 순서를 살펴보면, “七→詔→冊→令→教→冊→表→上書→啓→彈事→牋→奏記→書→檄→對問→設論→辭→序→頌→贊→符命→史論→史述贊→論→連珠→箴→銘→誄→哀文→碑文→墓誌→行狀→弔文→祭文”과 같이 나타난다. 제시된 문류를 살펴보면, 문선은 序와 論이라는 두 종의 散文 문류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駢文을 주로 하는 奏議類 문장과 뒷부분은 의례에 사용되는 有韻文이 집중된 이분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문선』이 문체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류들을 살펴보면 『문선』과 다르게 나타난다. 『동문선』의 문류를 보면, “詔勅→教書→制誥→冊→批答→表箋→啓→狀→露布→檄書→箴→銘→頌→贊→奏議→箴子→文→書→記→序→說→論→傳→跋→致語→辨→對→志→原→牒→議→雜著→策題→上梁文→祭文→祝文→疏→道場文→齋詞→青詞→哀詞→誄→行狀→碑銘→墓誌”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詔勅에서 箴子까지는 四六의 駢文인 奏議類 문장이고, 文中에서 策題까지는 文藝文으로서 산문의 형식을 가진 문류이고, 上梁文에서 墓誌까지는 의례에 사용되는 有韻文의 형식을 가진 문장들이다. 이렇게 『동문선』은 『문선』과는 달리, 駢文문류와 散文문류 그리고 有韻文문류를 모두 포함하는 병산검종의 분류성격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문선』은 문체 분류방식에서 『문선』과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체 분류의 성격에 있어서도 『문



선』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문선』은 官撰으로서 개성보다는 보편성에 중심을 둔 편찬물이고, 『문선』은 私撰으로서 개인의 문예적 개성에 무게를 둔 선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거정이 『문선』을 본받았다고 한 것은 자료의 형태를 말한 것으로 국한시켜 보아야 한다. 즉 『문선』과 같은 선문학적 자료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 5. 結論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동문선』은 문장을 분류함에 있어서 먼저 辭賦·詩·文의 문장 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治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닌 문장들을 모아 형식 분류하였다. 文類들을 나열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辭賦→詩→駢體의 奏議類→散文體의 文類→有韻文인 儒佛道の 哀祭類와 같이 형식별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의 순서를 나열함에 있어서도 형식별로 나열하여 놓은 것은 형식 분류에 대한 분명한 기획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包羅廣博 衆體皆備(필자 주 : 폭넓게 문장을 선집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장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는 『동문선』의 書評에서도 『동문선』의 형식주의 분류기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當代나 後代の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 받았던 주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選文觀의 불철저성에 대한 비판들 또한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 분류기준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주의 분류기준은 選文層次 分類方式으로 구체화된다. 『동문선』은 文類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직접 문장을 제시하는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체론이나 자목분류 없이 문장을 선집하여 직접 제시하는 선문층차 분류방식은 詩文의 형식적 다양

성을 문체론이나 자목의 제시 없이 선문된 문장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동문선』에 선집된 작품들은 문장 하나 하나가 文體論과 子目的 역할을 하는 목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문선』 편찬자들은 바로 이러한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이용하여 중세 한문학의 다양한 형식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끝으로 『동문선』 문체 분류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駢文選集인 『동인지문사록』과 散文選集인 『동문수』와 비교한 결과 『동문선』은 두 자료의 문류들을 균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駢散兼宗의 문체 분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동문선』이 문체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류들을 살펴보면, “詔勅→敎書→制誥→冊→批答→表箋→啓→狀→露布→檄書→箴→銘→頌→贊→奏議→筓子→文→書→記→序→說→論→傳→跋→致語→辨→對→志→原→牒→議→雜著→策題→上梁文→祭文→祝文→疏→道場文→齋詞→青詞→哀詞→誄→行狀→碑銘→墓誌”와 같이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詔勅에서 筓子까지는 四六의 駢文인 奏議類 문장이고, 文에서 策題까지는 文藝文으로서 산문의 형식을 가진 문류이고, 上梁文에서 墓誌까지는 의례에 사용되는 有韻文의 형식을 가진 문장들이다. 이렇게 『동문선』은 駢文문류와 散文문류 그리고 有韻文문류를 모두 포함하는 병산검종의 분류성격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 결과로 『동문선』이 『문선』의 체계를 본받았다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시문선집들이 지니는 분류기준과 자료형태라는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개의 시문선집이 자료로서 지녀야 하는 개성적인 측면, 즉 문체 분류 방식과 그 성격에 있어서는 『문선』과는 선명한 차별성을 지닌 개성적 문체 분류 자료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諸海星, 「中國文體分類學的研究」, 국립대만사범대학교국문연구소, 중화민국 12년 6월.
- 『국역동문선1』, <동문선서>, 影印版, 민족문화추진회, 1998a.
- 『국역동문선1』, <동문선전>, 影印版, 민족문화추진회, 1998b.
- 『原本周易』, 太山文化社, 1984.
- 廓紹虞·王文生, 『中國歷代文論選』 第 1冊, 上海古籍出版社, 1982.
- 沈成鎬, 「楚辭文體考」, 『中國語文學』 제26집, 1995.
- 이동환, 「『동문선』의 선문방향과 그 의미」, 『한국고전심포지움』, 일조각, 1985.
-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贊條, 大安出版社, 1998.
- 즐고, 「『동문선』 소재 贊의 형식 분류」, 『동방한문학』, 13집 동방한문학회, 1997.
- 즐고, 「頌의 문류 특성에 대하여」, 『국학논총』 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소, 1997.
- 고경식, 「고려시대의 전연구-동문선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82.
- 고혜영, 「李穡문학연구-동문선 소재 전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1989.
- 김성기, 「고려한시연구-동문선소재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78.
- 김성진, 「동문선 소장 고려전기 문학의 기술방식」, 『한국학논집25』, 계명대학교, 1998.
- 김시업, 「동문선의 시문학세계」, 『진단학보』, 진단학회, 1985.
- 김윤권, 「동문선 소재 賦문학 연구」, 강원대학교, 1993.
- 이경자, 「동문선 소재 致語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9.
- 蔣伯潛, 『文體論纂要』, 正中書局, 1942.

이가원, 「한문 문체의 분류적 연구」,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0.

『고려명현집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0.

투고일 2003. 6.24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by literary style of Dongmoonseon

Kim, Jong-cheol

In studying the material for classification by literary style, the features of the classification by literary style of each work would be shown only when the standard and method of classification, specific character, and so on should be precisely suggested. Therefore,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classification by literary style of Dongmoonseon which have not genuinely been discussed once so far even though they should have been done.

First of all, Dongmoonseon used a form of literature as classification standard. On classifying the sentences, they were classified after collecting the useful sentences to teach people, having the forms of writings such as Sabu, poetry, and prose as subject. According to the order arranged the kinds of sentences, it shows the clear position to classification based on form by plac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forms like Sabu -->poetry -->Joouiryoo of Byeonche -->sentences in prose -->Aejeryoo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or Yoowoonmoon.

Next, Dongmoonseon takes the simplest way of classification which shows the type of sentence and presents the sentence below it directly. The way of classification like this shows the formal variety of poetry and prose with the anthologized sentences straightly without

presenting stylistics or Jamok. The compilers of Dongmoonseon tried to systematically show a variety of form of Korean literatures during the medieval times by using this way of classification.

In conclusion, Dongmoonseon is characteristic of classification by literary style like Byeonsangyeomjong, which equally and generally includes all the types of sentences such as Byeonmoon, prose, and Yoonmoon.



Dongmoonseon, literary style, kind of sentence, classification based on form, Byeonmoon, prose

## 『東文選』 문체 분류의 성격

김 종 철

문체 분류 자료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각각의 자료들이 지니고 있는 분류기준과 방법, 성격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만 각 자료가 지닌 문체 분류 개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당연히 논의되었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동문선』이 지니고 있는 문체 분류기준과 방식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방법으로 형성된 『동문선』 문체 분류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동문선』은 문학의 형식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장을 분류함에 있어서 먼저 辭賦·詩·文의 문장 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治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닌 문장들을 모아 형식 분류하였다. 文類들을 나열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辭賦→詩→駢體의 奏議類→散文體의 文類→有韻文인 儒佛道의 哀祭類와 같이 형식별로 나열하여 형식 분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동문선』은 文類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직접 문장을 제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選文層次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체론이나 子目분류 없이 문장을 선집하여 직접 제시하는 선문층차 분류방식은 詩文의 형식적 다양성을 문체론이나 자목의 제시 없이 선문된 문장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동문선』 편찬자들은 바로 이러한 선문층차 분류방식을 이용하여 중세 한문학의 다양한 형식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동문선』은 駢文과 散文의 문류들을 균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駢散兼宗의 문체 분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재로 『동문선』이

문체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류들을 살펴보면 “詔勅→教書→制誥→冊→批答→表箋→啓→狀→露布→檄書→箴→銘→頌→贊→奏議→筭子→文→書→記→序→說→論→傳→跋→致語→辨→對→志→原→牒→議→雜著→策題→上梁文→祭文→祝文→疏→道場文→齋詞→青詞→哀詞→誄→行狀→碑銘→墓誌”와 같이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詔勅에서 筭子까지는 四六의 駢文인 奏議類 문장이고, 文에서 策題까지는 文藝文으로서 산문의 형식을 가진 문류이고, 上梁文에서 墓誌까지는 의례에 사용되는 有韻文의 형식을 가진 문장들이다. 이렇게 『동문선』은 駢文문류와 散文문류 그리고 有韻文문류를 모두 포함하는 병산검종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 결과로 『동문선』이 『문선』의 체계를 본받았다는 평가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시문선집들이 지니는 분류기준과 자료형태라는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개의 시문선집이 자료로서 지녀야 하는 개성적인 측면 즉 문체 분류 방식과 그 성격에 있어서는 『문선』과는 선명한 차별성을 지닌 개성적 문체 분류 자료라는 것이다.

주제어 동문선, 文體, 文類, 형식, 분류, 駢文, 散文